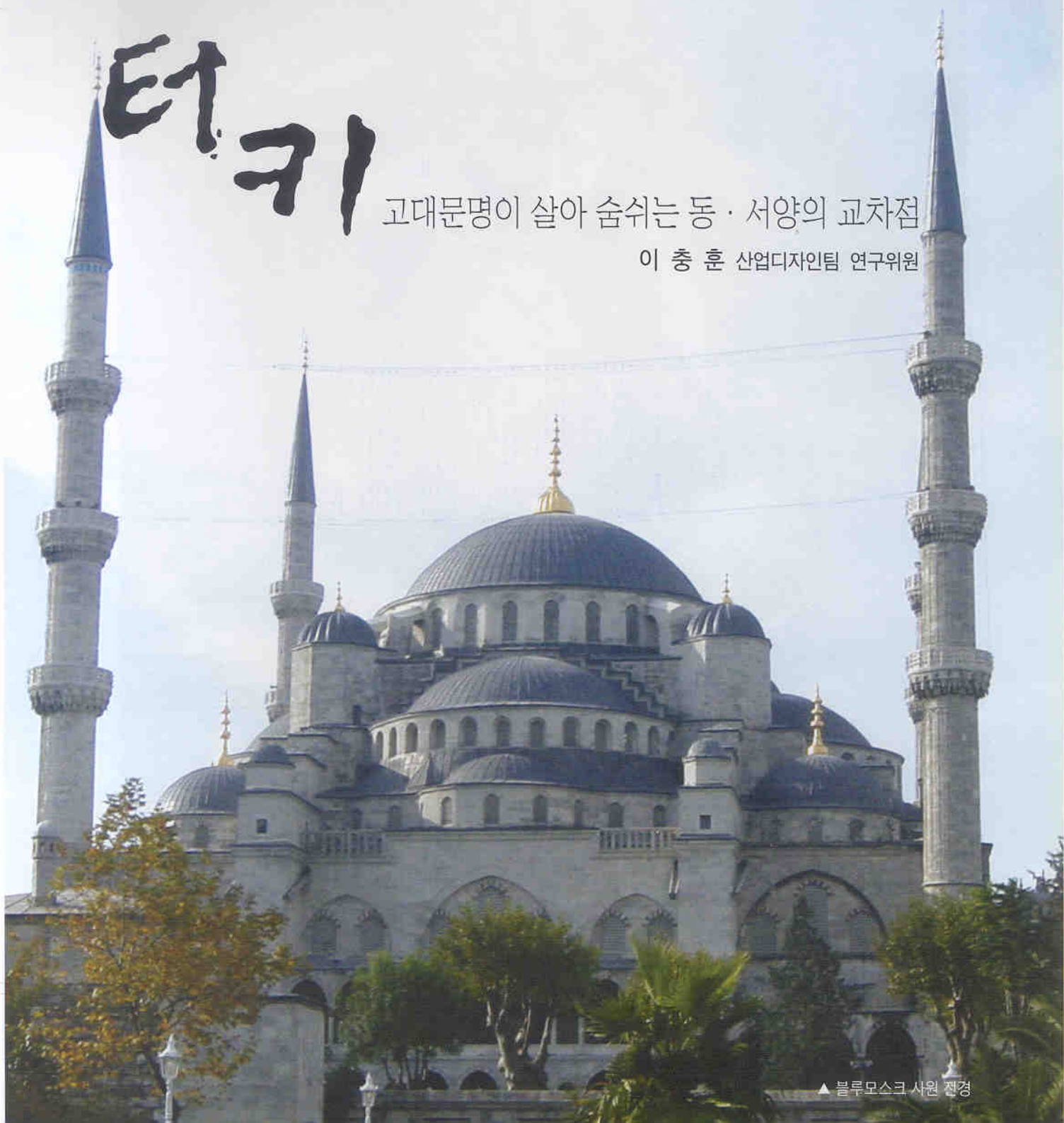


터키

고대문명이 살아 숨쉬는 동·서양의 교차점

이 충 훈 산업디자인팀 연구위원





◀ 이스탄불 도심건축물

터키 한국대사관이 후원하는 한국산업미술가협회 정기 회원전이 “한국의 美”를 주제로 터키 앙카라 현대예술원에서 열리게 되어 필자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협회 회원들과 함께 터키를 여행하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1시에 인천공항에서 전시참가단 10여명이 인사를 나누다음 출발하게 되었다. 출발전 여행사로 부터 얻은 터키의 역사와 7천만명의 인구,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조건, 그리고 한반도의 3.5배 넓이의 국토, 터키100만TL(리라)가 약1,200원 정도의 환율지식 등 몇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들었지만 “동서양의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형제나라로 부르는 터키인과 터키역사와 문화에 대해 직접 접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출발전 부터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일행을 태운 비행기는 어느덧 북경을 거쳐 중앙아시아 사막을 날고 있었다. 서울을 출발한지 꼭 12시간만에 이스탄불공항에 도착하니 현지시간은 오후8시로, 우리시간보다 7시간 늦게 가고 있었다.

터키는 OECD, NATO유럽회의, 유럽의회회원국, EU의 준회원국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국가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터키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인들은 터키가 유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터키는 국토의 95%가 아시아에 있고, 나머지 5%가 그리스와 인접하여 유럽대륙(발칸반도)



▲ 소피아 사원 전경

에 걸쳐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지중해를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하다.

『성스런 지혜의 사원-소피아』

시차적응이 안된탓인지 새벽녘에 잠들었다가 시내에 울려 퍼지는 코란음악소리에 깨어나니 벌써 아침이었다. 일행은 제일 먼저 소피아사원을 찾았다. A.D 324년 동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비잔티움(현재의 이스탄불)으로 옮겨 명칭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꾼 이래로 1600년 동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이며, 동로마제국 최고의 유적이 바로 소피아사원이다.



▲ 성 소피아사원 주변 거리

이야 소피아(Hagia Sophia)는 그리스어로 '성스런 지혜(Holy wisdom)'란 뜻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한다. 이 사원은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6년간의 건설 공사를 통해 A.D 537년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그 외관은 그 동안의 숭한 재해를 거치면서 건립 당시의 모습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고 한다.

성 소피아 사원은, 그 종교적 장엄성 뿐만 아니라, 비잔틴 건축의 정수로서, 그 규모에 압도당할 것만 같았다. 콘스탄티노플 최대 성당으로서의 소피아 사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축구장만큼 넓은 내부 공간에 있었다. 밝은 햇빛이 어두운 사원 내부 공간의 장엄함에 빛을 밝히고 있었고, 천장아래의 회랑과 대리석 기둥, 화려한 모자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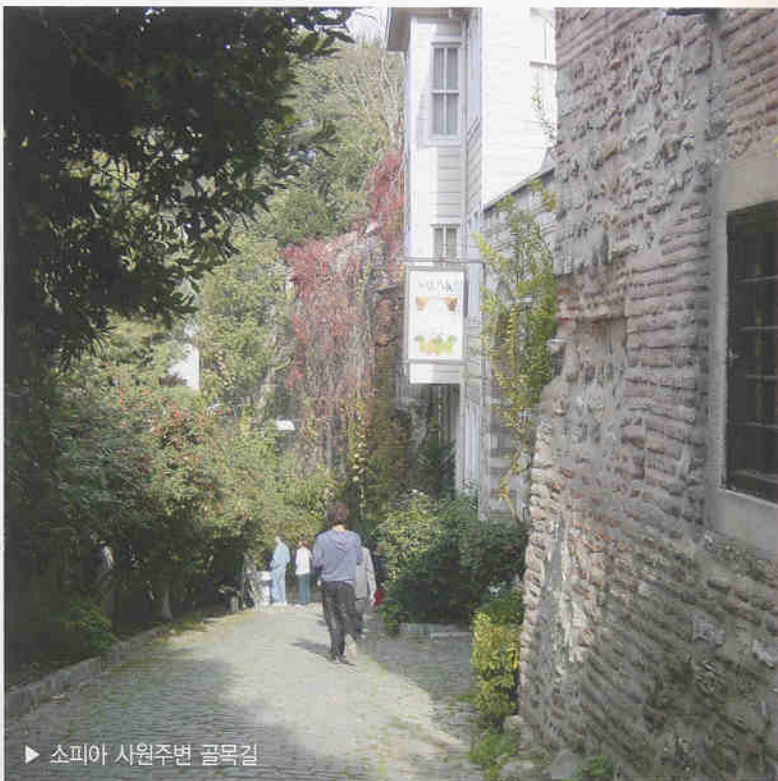
벽면, 대리석 바닥, 장엄한 돔, 그리고 돔 벽의 40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더욱 환상적이었다. 또한 아라베스크의 신비한 코란 장식 뒤로, 회칠을 벗겨 드러나게 된 기독교 성화들이 찬연한 금빛을 발산하고 있는 사원내부에 묘한 조화로움 느끼게 된다.

성소피아 사원이 비잔틴 최고의 건축물이라면, 블루모스크는 이슬람 최고의 사원으로 손꼽힌다. 소피아사원 인근에 있는 블루모스크 사원은 소피아 사원과 경쟁이라도 하듯 웅장해 보였다. 블루모스크 사원은 술탄아멧1세에 의해 1609년부터 건립되기 시작했으며, 6개의 웅장한 첨탑을 지닌 기둥과 벽에 명암이 있는 99가지의 푸른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블루모스크라고 전해진다.

▶ 블루모스크 사원 천정의 아름다운 문양



▶ 소피아 사원내부
▶ 블루모스크 사원 첨탑



▶ 소피아 사원주변 골목길



내부 바닥은 화려한 무늬의 양탄자가 깔려 있고, 벽면은 문양이 새겨진 푸른색 타일로 치장되어 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블루모스크는 지금 이스탄불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밤에는 이곳에서 빛과 소리의 쇼가 펼쳐져 여행자들을 아득한 옛 세계로 이끈다. 소피아사원 주변 가로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골목길을 돌아보았다. 관광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사원에서 주변 골목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대리석과 목조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 여기에 어울리도록 디자인된 상가사 인물들은 배경 건물보다 튀지 않도록 배려된 노력이 형태와 색상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과 잘 가꾸어진 정원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블럭,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주변 골목길을 편안하고 여유있게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그 골목안에는 군데군데 작은 레스토랑과 도서관의 안내사인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골목길을 벗어나 소피아 사원 근처에 위치한 톱카프궁전으로 향했다. 보스포루스 해협쪽의 성문에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대포의 문'이라는 뜻으로 톱카프라고 부르고 있다.

오스만투르크 제2궁전으로 불리는 톱카프 궁전은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듯 했다. 1453년 이 도시를 정복한 메흐메트가 처음 이곳에 궁전을 건설하여 370년 동안 이 궁전의 영역을 넓혀갔다. 지금은 박물관처럼 사용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만제국 때 주변 나라에서 조공으로 받은 무수히 많은 보물들과 역대 술탄왕들

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이 궁전에 있는 보물을 다 팔면 부채에 허덕이는 터키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한다. 보석전시관에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전시되어 있어 눈부신 광채가 보석의 진가를 발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궁전 별실에 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양의 코란과,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이슬람교의 선지자 마호메트의 인장이 새겨진 유물들을 보면서 궁전을 박물관으로 꾸며 세계각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터키정부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이스탄불 거리상가 안내 사인물
사인은 건물을 가리지 않고
건물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다.

▶ 톱카프궁전의 "예절의 문"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이곳 궁전문을
모델로 하였다고 한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역사 도시, 이스탄불』

유럽과 아시아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뉘는데 이스탄불은 양 대륙에 걸쳐 세워진 세계 유일의 곳이다.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의 도시로서 거주 인구가 1,200만명 정도이며,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수도 이상의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스탄불은 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오스만은행을 비롯하여 국립은행·외국은행이 많다. 베을루 동부는 택시광장을 중심으로 일류 호텔·레스토랑·극장·대형점 및 각국의 영사관이 늘어서 있다. 골든혼의 남쪽인 이스탄불은 옛날의 이스탄불이 자리잡았던 전통 있는 지구로, 지금도 비잔틴시대의 성벽이 서쪽 경계를 둘러싸고 있다.

아흐메드 사원(블루모스크)·설레이만 사원의 2대 이슬람 사원을 비롯하여 예니성당·소피아(현재 박물관)·토포카피 궁전(현재 박물관)·고고학박물관·터키-이슬

람미술관, 고대 오리엔트미술관, 그리고 이스탄불대학 등이 있으며 이 도시의 전성기를 생각나게 하는 대시장(그랜드 바자르)도 있다.

터키 최대의 공업도시이기도 한 이스탄불은 섬유·식품가공·농기구·고무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군수 공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스탄불은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의 수도였고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렀는데, 오스만제국에 의해 점령당한 뒤에 이스탄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도시는 멀리서 4세기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으로 부터 오스만 터키를 거치고 현재의 터키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0년의 세월 동안 이 정도로 온전(?)할 수 있다는 자체만해도 기적에 가까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이스탄불을 보고 환상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세월의 두께가 빚어 낸 이 도시의 실상이 이방인 여행자인 나의 첫 눈에는 무질서함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지구상에 소문난 유적지마다 환상과 실상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가지는 환상은 불과 100년 안팎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인해 너무 단조롭고 가지런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도 터키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증가하는 교통난을 기존의 교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횡단철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스탄불은 장구한 역사를 비쳐주는 박물관 도시만은 아닌, 과거에 머물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보려면 몇일은 걸린다는 이스탄불을 한나절만



◀ 이스탄불의 전차역
버스도 이 도로를 같이 통행한다.



▲ 협회일행과 한국대사부부의 기념촬영

◀ 전시회에 출품한 필자의 작품
"한국의 풍수지리"



에 돌아보고 전시회가 열리기로 되어있
는 앙카라로 이동하였다.

『새로운 행정수도 - 앙카라』

앙카라는 이스탄불에서 아시아쪽으로 해협을 건너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었다.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283만명인 앙카라는 로마시대에는 문화, 교역, 예술의 중심지였고 오스만시대에는 동방 카라반의 중요한 교역지였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서서히 그 중요성을 잃게되었다. 그러나, 케말 아타튀르크가 독립전쟁을 지휘하면서 앙카라의 역할과 중요성, 입지조건 등이 부각되었고, 1923년에 마침내 새로운 터키공화국 수도로 제정되었다. 공화국 성립과 더불어 수도인 이스탄불을 대신하여 새로운 수도로서 발족하게된 것이다. 1925년 이후는 신시가의 건설과 함께 근대적 도시로서 크게 발전을 하였다. 앙카라는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뉘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구시가는 오스만시대의 앙카라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좁고 정비되지 않은 바자르(시장)를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해 있으며, 시내에는 많은 사원과 히타이트박물관(고고학박물관) · 민속박물관이 있고, 부근에는 선사시대와 고대, 비잔틴시대 등의 유적도 풍부하다. 구시가의 남쪽에는 도시계획에 바탕을 둔

정돈된 신시가가 자리잡고 있다. 중앙을 관통하는 아타튀르크 거리 연변에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오페라하우스 등 근대적 건축물이 이어져 있었다.

이스탄불이 금융 · 무역의 중심도시라고 한다면, 수도인 앙카라는 터키공화국의 새로운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해야할 것이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큰 관심사안으로 떠오르는 우리나라보다 80년전에 그들은 이미 새로운 행정수도를 앙카라로 옮긴 것이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제일먼저 매캐한 석탄 연기가 코를 자극했다. 마치 연기가 도시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도시가스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대신 값싼 러시아산 무연탄을 수입하여 주택 및 사무실 난방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밤새 자욱했던 석탄 연기는 모두 사라지고 우리일행은 전시회 준비를 위하여 시내에 위치한 터키현대예술원으로 향하였다. 포스터작품과 공예작품이 포장된 상자를 풀고, 조명을 설치하고, 작품을 진열하는데 어느덧 오후로 접어들었다. 오후5시 오픈시간에 맞춰 터키주재 한국대사관의 대사내외를 비롯한 공관직원들과 많은 각계인사들이 넓은 전시장을 꽉메우고 있었다. 터키사람들은 한국의 디자인과 공예작품에 대해 예상외로 진지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터키 앙카라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인 지도교수와 함께 전시회장을 찾아와 우리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나눌수 있었다. 오프행사가 끝나고 한국대사관에서 우리 일행에게 저녁만찬에 초



- ◀ 이즈밀시의 한 레스토랑 안내사인(우)
- ◀ 카파도키아의 석굴교회(좌)

대해 주었다. 멀리 터키에서 디자인을 통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홍보와 문화교류를 위해 힘써주신 협회 회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한국과 터키 간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한국 대사님의 환영사와 협회 이사장인 경기대학교 이인자 교수의 답사가 이어졌다.

『신비스러운 석굴도시 - 카파도키아』

다음날 우리 일행은 전시간 동안 지방여행을 위해 앙카라를 출발하였다. 버스를 타고 앙카라에서 에게 해 연안도시 이즈밀까지는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이다. 터키의 내륙지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 없는 야산과 밀밭이 평야처럼 끝없이 펼쳐졌다. 처음 도착한 곳은 카파도키아로 4세기 후반부터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화산으로 생성된 연한 바위 밑을 수백년동안 동굴을 파고 거주하였다는 카이지역은 '요정의 굴뚝'이란 별명이 붙은 수천 개의 버섯과 촛불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대지 위에 늘어선 신비스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특히 일몰 때 붉은 석양 빛을 받은 암석들은 제각기 고유한 빛을 발산해 더욱 신비스럽고, 황금빛, 붉은 빛, 회색빛 등 다양한 색깔의 암석은 매우 신기했다. 원추형 모양의 암석 수천 개가 대지 위에 늘어선 모습은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고 한다. 이곳 카파도키아에는 국가에서 직영하는 카페트 판매점이 있

어 방문하여 카페트 제조과정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디자인 양식에 따라 꽃무늬 양식과 기하학적 양식이 있는데, 터키에서는 기하학적 무늬가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두 가지 양식이 모두 애용되었으며, 끝없이 연결되는 매듭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는 지혜와 불멸을 의미한다고 한다. 염색 비법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천연 염료를 사용하며, 사프란 꽃에서는 노란색, 오디나무에서 연두색, 인디고 나무에서는 푸른색, 털 익은 밤이나 도토리 껍질에서 밤색의 염료를 얻는데 밤색의 염료는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 색 바랜 듯한 느낌을 준다. 카페트의 꽃은 실크 카페트이다. 실크 카페트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 신비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마치 베를에서 모시를 짜듯이 가는 실로 짜기 때문에 패턴디자인도 상당히 정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크 카페트는 짜는 데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보통 작은 것 한 장에 1000\$~25,000\$정도로 가격 또한 비싼 편이다. 따라서 실크 카페트는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곳이나 궁전을 장식하는 데



▶ 카페트를 짜고 있는 모습

에 주로 사용되었고 전해진다. 카페트는 터키의 중요한 관광상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조기술을 이용하여 가방이나 손지갑등 실용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데 무늬나 형태가 무척 다양했다. 카파도키아를 떠나 터키의 남서부 지방의 데니즐리주에 위치한 파묵칼레 온천에 도착하였다. 파묵칼레(Pamukkale)는 2000년전 로마시대에 형성된 온천 휴양지로서 파묵칼레의 거대한 산악지대에서 칼슘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된 온천수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칼슘성분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절벽에 새하얗게 달라붙었다. 칼슘이 쌓이는 과정에서 물웅덩이가 생겨났고 그 웅덩이에는 푸른 온천수가 담겨있었다.

이 온천 주위에 로마인 들이 건설했다는 히에라폴리스 고대도시의 원형경기장, 아폴로신전, 석관으로 가득찬 노천 공동목욕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곳을 거쳐 기원전 이오니아문명을 발달시킨 이즈밀에 도착하였다. 해안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제 주도로 착각할 만큼 많은 감귤나무밭이 이어져 있었다.



▲ 파묵칼레의 칼슘온천

『유적자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전략』

에게해에 접한 터키 제3의 도시인 이즈밀은 자연의 혜택을 받은 항구로 터어키에서도 중요한 무역항으로 연안 지방의 중심일뿐 아니라, 주변 휴양지나 고대 유적 탐방의 기지역할을 하는 도시이다. 특히 해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가로환경이 인상적이었다. 이즈밀시 해변 스트리트 퍼니쉬는 해변가로를 블럭단위로 그 성격에 따라 설정하여 블럭의 색조를 표현하였고, 그 사이로 조형물과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었었다. 여기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즈밀시는 항구도시로서 해변공원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즐거운 물(mall)”을 연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시공간을 정서적 문화공간(emotional space)으로 만드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사회적 자본축척이 가능해지고, 살아있는 장소가 될 것이며, 기억하고 싶은 곳이 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이즈밀을 끝으로 지방여행을 마치고 앙카라로 다시 돌아와 전시회를 마치게 되었다.



▲ 이즈밀 시의 해안공원



포스터 작품들은 요청에 의하여 현지 한국대사관에 모두 기증하기로 하고 일부 공예작품들만 재포장하고우리 일행은 앙카라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이스탄불로 되돌아왔다. 일행은 서울로 출발할 시간까지 한나절의 여유가 있어서 그랜드바자르를 둘러보았다. 그랜드바자르는 오스만 터키 제국시대인 1461년에 세워진 종합시장으로서 약 20만 평방미터에 약 5천개의 상점이 미로로 연결되어 있고, 각종 토산품 및 특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에는 금세공사로, 카펫트상인로, 직인로등이 독특한 쇼핑몰을 형성하고 있었다. 터키특산품에는 민속 공예품, 세계적인 명성의 카페트, 손으로 직접 그린 도자기, 동제품, 낚시제품, 물파이프 등이 있고, 쇼케이스안에는 빛나는 금장신구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보스포러스해협을 운항하는 관광선을 타고 돌아보기로 하였다.

토요일 오후 보스포러스해협 주변 선착장에는 많은 인파가 북적거렸다. 날씨는 잔뜩 찌뿌렸지만, 배는 미끄러지듯 해협 한 가운데로 나가고 있었다. 바다 바람이 세차

게 불고 해협양쪽을 연결하는 이 아름다운 해협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다리 중에 하나인 보스포러스다리는 수면에서의 다리 높이는 65m로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해협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양쪽해협 기슭에 늘어선 터키 상류층의 주택과 별장, 그리고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전을 모방해 지었다는 화려한 돌바마체궁전, 이 건축물들이 하나의 잘 디자인된 조형물처럼 주위배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탄불공항에서 오후10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니 일주일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듯 했다. 이번 터키 국내도시들을 일주일간 여행하고 느낀점은 첫째, 우리 한국사람들을 일등 국민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터키 국민들의 소박하고, 끈끈한 정으로 인하여, 그 어느 외국에서 이곳 말고 마치 우리가 이들의 형제처럼 대접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6.25전쟁당시 미군 다음으로 많은 지원군을 파병하여 우리를 도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근원지가 원래 중앙아시아였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때, 이는 터키 민족의 고향 역시 중앙아시아라는 사실과 관



▶ 쇼핑센터 안내사인물



▲ 보스포러스해협의 상류층 주택과 별장



련하여 두 민족이 정서나 풍속, 언어에 있어 닮은 부분이 많다 라는 해답을 주는지도 모른다.

둘째, 터키인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고대 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자신들이 간직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전체가 거대한 석굴로 형성되어 있는 카파도키아의 석굴과 건물을 연결시켜 만든 모텔, 레스토랑과 석굴주거지, 그리고 옛 실크로드 상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레스토랑 역시 많은 관광객이 찾을 만큼 마케팅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헤라폴리스와 에페스의 고대도시에 남아있는 유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장소마케팅 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 마케팅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 문화상품을 추



▲ 대상들의 숙소를 개조하여 만든 레스토랑



▲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의 묘

◀ 카파도키아의 석굴 호텔

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한다면,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으로서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창출하는 지역 활성화 전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를 형제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터키와 사회, 경제, 문화 등 각분야에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터키에서 한국산 제품 구매운동이 있듯이... 이번 여행이 전시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전시 기간동안 고대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둘러 보는데 한정되었으나, 다음기회에는 그들의 도시환경디자인과, 그들의 문화와 역사속에 스며있는 소재를 찾는 디자인기행을 해보리라 다짐하였다.

이정호